

보도 일시	2022. 12. 27(화) 조간 2022. 12. 26(월) 11:00	배포 일시	2022. 12. 26.(월) 06:00
담당 부서	해사안전국 첨단해양교통관리팀	책임자	팀 장 권순태 (044-200-6141)
		담당자	사무관 이삼준 (044-200-6030)

바다내비 앱, 간편하고 편리하게 이용해요

- 전자해도 내려받기, 수상레저 금지구역 표출 등 편의기능 강화 -

해양수산부(장관 조승환)는 오는 12월 27일(화)부터 기능이 개선된 바다내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(App)을 배포한다고 밝혔다.

바다내비 애플리케이션은 충돌 등 해양사고 방지를 위해 해양수산부가 2021년 1월 30일부터 시행해온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서비스는 스마트폰에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으로 구글 플레이스토어, 앱스토어를 통해 누구나 무료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.

이번 기능 개선에서는, △ 인터넷 통신이 가능해야만 이용할 수 있었던 전자해도를 스마트폰에 저장하여 인터넷 연결이 안 되는 곳에서도 바다내비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, △ 애플리케이션 화면에서 한 번의 클릭으로 해양기상부이 등에서 관측되는 풍속, 수온 등 실시간 기상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하였다. 또한 △ 전국 연안에 산재한 28개 수상레저 활동 금지구역*을 전자해도상에 나타나도록 개선하였다.

* 「수상레저안전법」 제25조에 따라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수상레저활동을 금지한 구역, 총 28개 구역 표출(서해 17개, 남해 6개, 동해 5개)

바다내비 애플리케이션은 전국 연안으로부터 최대 30km 떨어진 해상까지 이용할 수 있고, 연안에서 해상 100km까지는 전용 단말기를 설치해야 바다내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.

정태성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“이번 기능개선으로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바다내비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”라며, “앞으로도 더 많은 국민이 바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애플리케이션을 개선해 나가겠다.”고 말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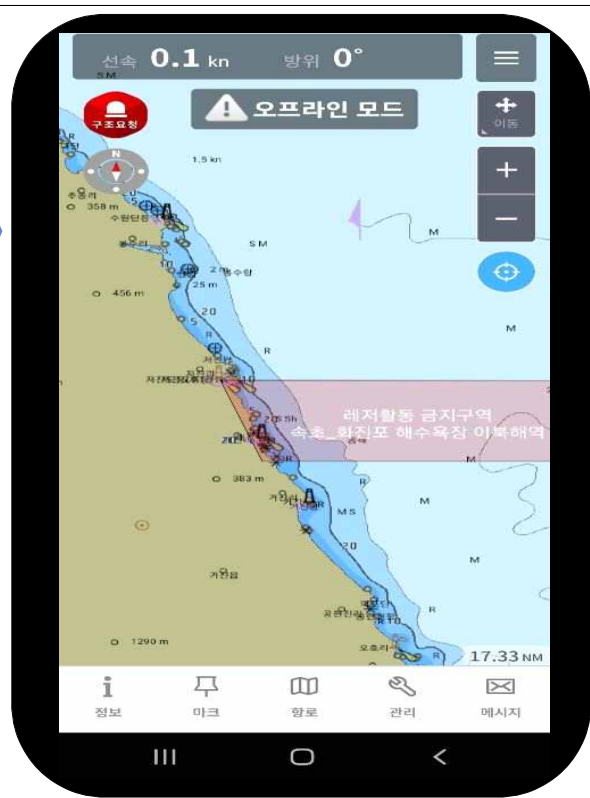


참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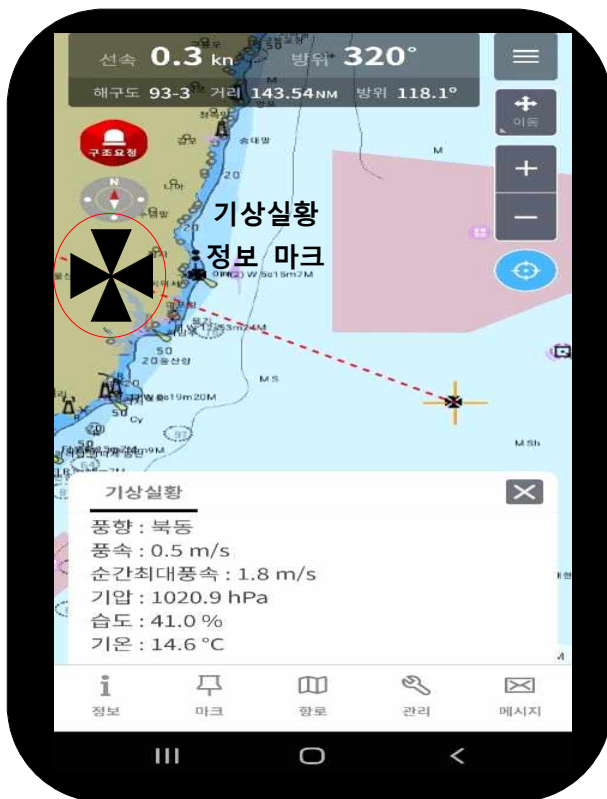
바다내비 앱 업데이트 주요 기능



61개 해역 구분 다운로드 기능



미리 다운로드 받은 해도



기상실황 정보 표출



수상레저 금지구역 표출